



## 미 증시, 브레이너드의 매파적인 발언 등으로 약세

### 미국 증시 리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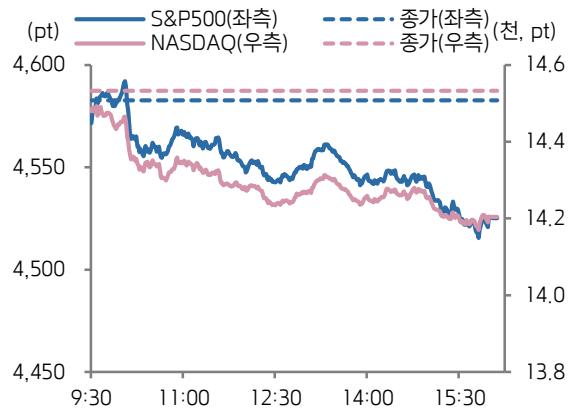
5 일 (화) 미국 증시는 6 일 (수) FOMC 의사록 공개 앞두고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져 있는 가운데, 브레이너스 연준 이사의 매파적인 발언을 계기로 매도압력이 커지면서 1%대 하락 마감. 서방국가들의 대-러시아 추가 제재 발표, ISM 서비스업 PMI 의 높아진 물가 지수 등 부담 요인들로 0.2% 하락 출발한 S&P500 는 브레이너드의 가파른 QT 지지 발언을 계기로 성장주 중심 매물이 출회되며 낙폭 확대. 이날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세계은행의 아시아 경제성장을 전망 하향조정, 상해의 락다운 연장 등이 있었음(다우 -0.8%, S&P500 -1.26%, 나스닥 -2.26%, 러셀 2000 -2.36%).

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자는 대차대조표 축소는 이르면 5 월부터 과거보다 빠른 속도(at a rapid pace)로 진행될 거라고 언급했고, 이에 주식시장은 연준의 긴축 정책 가속화에 대한 우려감이 재부각됨. 브레이너드 이사의 발언 여파로 미국채 2 년물 금리는 9bp(2.51%), 10 년물 금리는 14bp(2.55%) 급등. 이날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도 50bp 금리 인상에 열려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매파적인 발언을 함.

서방국가들의 러시아의 전쟁범죄 의혹에 대한 추가제재 관련 소식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은 VTB 등 일부 러시아 대형 은행들의 해외 자산들을 동결하는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. EU 는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의회에 제안하기로 발표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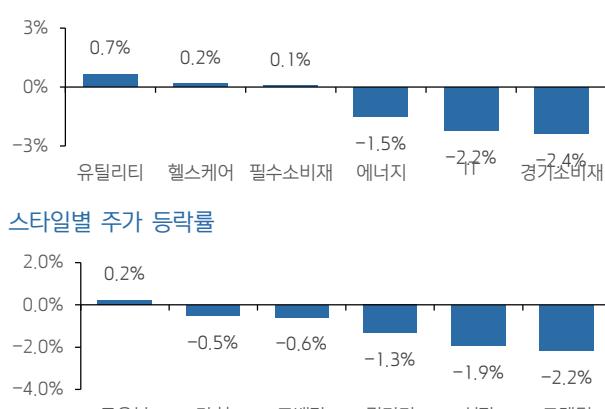
업종별로 살펴보면 유트리티(+0.7%), 헬스케어(+0.2%), 필수소비재(+0.1%) 등이 상승한 반면, 경기소비재(-2.4%), IT(-2.2%), 에너지(-1.5%)는 하락. 금융(-0.8%)은 미국 금리 급등에 불구하고 하락. 반도체 지수는 4.5% 하락, 다우 운송 지수는 2.8% 하락. 종목별로 애플(-1.9%), 테슬라(-4.7%), 엔비디아(-5.2%) 등 전 거래일 트위터 효과로 급등한 기술주들은 하락. 전일 27% 급등한 트위터(+2.0%)는 머스크가 트위터 이사로 합류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이어갔지만, 메타(-0.9%), 스냅(-2.8%) 등은 하락. 랄프로렌(-3.9%)은 웰스파고의 투자의견 하향 조정 여파로 하락, 스타벅스(-4.5%)는 전일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중단 소식, 웨드부시의 투자의견 하향조정 등으로 연일 하락. 한편 카니발(+2.4%)은 최근 일주일 승객수가 기업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상승,

### 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#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						
주식시장	지수	가격	외환시장			
			변화	지수	가격	
S&P500		4,525.12	-1.26%	USD/KRW	1,212.69	-0.13%
NASDAQ		14,204.17	-2.26%	달러 지수	99.48	+0.49%
다우		34,641.18	-0.8%	EUR/USD	1.09	+0.01%
VIX		21.03	+13.25%	USD/CNH	6.38	+0.02%
러셀 2000		2,046.04	-2.36%	USD/JPY	123.57	-0.02%
필라. 반도체		3,269.82	-4.53%	채권시장		
다우 운송		15,065.50	-2.81%	국고채 3년	2.890	+7.5bp
유럽, ETFs				국고채 10년	3.075	+3.8bp
		3,917.85	-0.84%	미국 국채 2년	2.514	+9.2bp
MSCI 전세계 지수		718.79	+0.86%	미국 국채 10년	2.547	+15.2bp
MSCI DM 지수		3,081.38	+0.8%	원자재 시장		
MSCI EM 지수		1,161.65	+1.38%	WTI	101.96	-1.28%
MSCI 한국 ETF		70.86	-1.62%	금	1927.5	-0.34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

 check

##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###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

MSCI 한국 지수 ETF 는 1.62% 하락, MSCI 신흥국 ETF 는 1.84% 하락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59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개월물은 1,219.9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7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### 주요 체크 사항

- 내일 새벽 공개될 3 월 FOMC 의사록을 둘러싼 경계심리의 장중 확산 가능성
- 매크로 불확실성이 재차 높아졌음에도 지수가 아닌 개별 종목장 지속 여부
- 원/달러 환율 재상승이 국내 외국인 대형주 수급에 미치는 영향

##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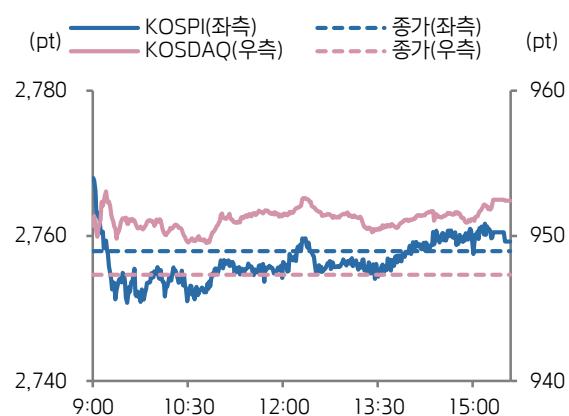
지난 3 월 FOMC 이후 연준의 매파 성향이 강화됐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였으나, 5 일 비둘기파 성향인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다는 점에 시장은 부담을 느낀 모습. 5 월 혹은 6 월 중 한번에 50bp 금리인상은 이미 연준 내에서 다수의견이 됐으며 시장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맞음. 하지만 양적긴축(QT)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가 입수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브레이너드의 “2017~2019 년에 비해 빠른 속도로 대차대조표 축소할 것”이라는 발언이 연준 정책 불확실성을 재차 유발한 것으로 판단.

일단 6 일(한국시간 7 일 새벽) 공개 예정인 3 월 FOMC 의사록을 통해서야 양적긴축 논의가 연준 내부에서 어느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. 해당 의사록에서 1) (브레이너드 이사가 이야기한대로) 만기도록 재투자하지 않는 채권의 규모 대폭 확대, 혹은 2) 만기 여부 상관없이 10 년물 등 보유채권 매각과 같은 매파적인 논의가 거론됐을 경우에는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.

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 나스닥 급락, 3 월 FOMC 의사록 경계심리 등으로 정체된 주가흐름을 보일 전망.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에 비해 3 월 중순 이후 주가 복원력이 크지 않았던 만큼, 금일에도 전반적인 지수 하방 압력은 제한된 채 인플레, 금리, 중국 등 개별 이슈에 따른 차별화된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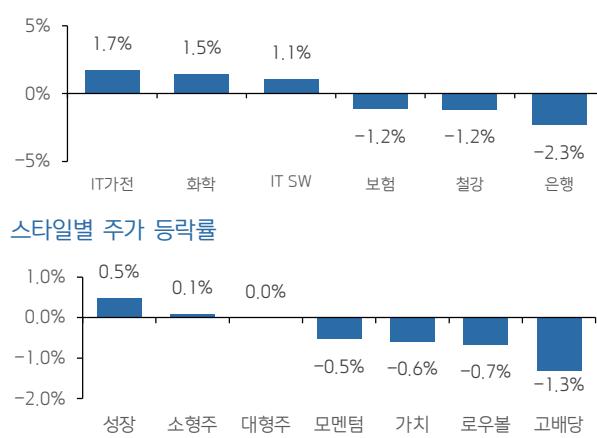
현재 증시 주변을 둘러보면, 연준의 긴축 우려, 경기 침체, 서방국가들의 대러시아 추가 제재, 중국 상해 봉쇄조치 장기화 및 그에 따른 중국발 물류대란 악화 등 그 환경이 표면상으로 결코 우호적인이지 않은 것은 사실. 다만, 상기 언급한 악재들은 연초 이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던 재료였던 만큼, 시장에도 1 분기 중에 이를 상당부분 소화해왔던 측면도 있었다고 판단. 이와 관련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 변동성 지수의 대용치로 활용되는 VIX 지수의 4 월물과 5 월물 선물 간 스프레드에 주목해볼 필요. 지난 2 월 중순~3 월 중순까지는 5 월물 가격보다 4 월물 가격이 높아지는 백워데이션 현상이 출현하는 등 증시 변동성 자체가 비정상적이었음. 그러나 5 일 데이터 기준으로도 지난 3 월 말 이후 현재까지 4 월물보다 5 월물 가격이 다시 높아진 콘텐코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신규 악재가 출현하지 않는 이상 가격 조정 압력은 1 분기에 비해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.

### 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#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



자료: Bloomberg, Quantwise, Fnguide, 키움증권



Compliance Notice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고지사항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.